2014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문화가치누리>

제주생태예술탐험 - “우리는 모두 물 한 방울 속 우주다!” 프로그램 안내

- 주관 : 생태치유여행 오롯
- 프로그램명 : 제주생태예술탐험 - “우리는 모두 물 한 방울 속 우주다!”
- 기간 : 1회차 09.20(토)~09.21(일), 2회차 10.04(토)~10.05(일)
- 내용 : 2일 일정의 물 한방울 캠프
- 장소 : 선흘곶자왈 동백동산, 서귀포 문섬 또는 범섬
- 참여인원 : 회차 당 20명(청소년 10명, 보호자 10명)
- 프로그램 소개
 - 제주도의 물을 주제로 습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생태프로그램
 - 눈물, 땀, 습지에 고인 물, 바다의 깊은 물을 보고, 그 속의 생명들과 산호와의 만남을 예술로 승화
- 프로그램 일정

첫째날 습지탐험 (10시-8시)	오전	숲의 심장을 찾아라!	동백동산 습지 탐험 시낭송과 명상	동백동산 동백동산
	식사	순환과 순함을 돕는 약선음식	감자 돈까스와 산채샐러드	산에사네
	오후	모래그림과 뜨개질 대화	모래사장에 그리는 가족 만다라 함께 뜨는 실대화	함덕 해안 함덕 해안
	식사	순환과 순함을 돕는 약선음식	질경이 수제비	산에사네
	저녁	뜨개질 기초 강좌		산에사네
둘째날 바다탐험 (9시-5시)	오전	바다에서 만나는 숲	체험다이빙 : 바다 속 산호와 물고기 보기	문섬/범섬
	식사	섬에서 시켜먹는 중식	조미료 없는 짜장면과 만두	문섬/범섬
	오후	코바늘로 뜨는 연산호	산호 이야기와 뜨개질	법환마을

○ 프로그램 상세 일정

첫째날 : 습지탐험 : 물의 여행

물은 어디에서 올까. 생명을 키우고 다시 순환하는 물의 여행을 체험.

[숲의 심장을 찾아라!]

▷ 동백동산 습지 탐험

선흘곶자왈의 자연해설사와 함께 먼물깎, 새로판물, 반못, 돛썩은물 등 동백동산의 습지를 탐험하고 습지 생물을 찾는다. 우리를 포함한 못생명은 물로부터 시작되었고, 물 없이는 못 산

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체험한다.

▷ 시낭송과 명상 : 나무가 된 물, 새가 된 물, 사람이 된 물

히말라야의 눈 한 송이가, 아프리카 악어의 침 한 방울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이 모두 하나의 물이고 우주임을 느끼게 하는 시 낭송과 명상이 동백동산의 흑통에서 아름답게 펼쳐진다.

점심식사 : 약선음식 (산에사네)

약선음식 전문가인 최순남 선생님과 치유의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산에사네에서 자라는 약초와 나물을 이용해서 만든 감자 돈까스와 산채 샐러드 먹는다.

[모래그림과 뜨개질 대화]

▷ 바다로 그리는 그림

함덕 해안에서 자녀와 부모님과 바다가 함께 그리는 모래와 바다 삶의 위치 만다라이다. 나뭇가지, 대나무 등을 이용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지탱목이자 컴퍼스가 되어 모래사장에 만다라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그린 그림은 결국 파도에 쓸려 사라진다.

▷ 함께 해야 뜰 수 있는 뜨개질 대화

반항하는 중학생 자녀와 방황하는 중년 부모들은 같이 협조해야만 뜰 수 있는 뜨개질 방식을 체험한다. 참가자들은 공간에 실로 그림을 그리듯, 열린 공간을 색으로 채운다.形形色색의 실을 이용하고 서로의 몸을 연결하여 뜨는 뜨개질이다.

저녁식사 : 약선음식 (산에사네)

약선음식 전문가인 최순남 선생님과 치유의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산에사네에서 자라는 약초와 나물을 이용해서 만든 질경이 수제비를 먹는다.

둘째날 : 바다탐험 : 우리는 모두 물에서 태어났어

겉에서 봐서는 모르는 물의 한길 속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경험.

[바다에서 만나는 숲]

▷ 스쿠버 다이빙 체험 : 산호정원 거닐기

서귀포 문섬과 범섬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이곳에는 국제적으로 독특한 연산호 군락지가 있다. 참가자들은 연산호가 키우는 바다 속 생태계를 체험다이빙을 통해 직접 체험한다. 중학생 자녀와 부모가 짝이 되어 '산호정원'을 거닌다.

점심식사 : 짜장면 시키신 분

체험다이빙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배로 섬으로 배달 오는 조미료가 없는 짜장면과 만두를 먹는다.

[코바늘로 뜨는 연산호]

▷ 천연기념물 연산호 이야기와 산호 뜨개질

물속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천연기념물 연산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참가자들은 범섬이 보이는 법환마을의 야외 공간에서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한 길 물 속, 한 길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누며 뜨개질을 한다. 산호 뜨개질은 간단한 코바늘 기법의 원칙을 배우고 응용하여 만들다 보면 산호 모양이 나오는 작업으로 협동 작업과 개인 작업이 다 가능하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열린다. 서로 모르고 있었던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것이다.